

[12차시] 헛갈리는 말



1. ‘안치다’와 ‘발치다’

요리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멘트를 따라가며 잘못 쓴 단어 2개를 찾아봅시다.

“아침을 굶고 다니니까 늘 오후가 되면 속이 출출한데요. 오늘은 맛있는 저녁상을 차려 보기로 하죠. 학교 다니면서 자취해 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 삼층밥 많이 해 보셨죠? 밥을 잘 하려면 우선 솥에다 쌀을 고르게 앉힌 다음 물의 양을 적당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불의 세기도 물론 중요하지요. 처음에는 강한 불로, 나중에는 약하게 줄였다가 김이 오르면 아주 낮춰서 뜸을 들여야 맛있는 밥이 됩니다. 밥은 올려놔오니 미역국도 끓여야지요. 미역국에 들어가는 재료는 다양한데요. 굴을 넣기도 하고 조개를 넣기도 하며 쇠고기도 넣더군요. 일부 지방에서는 들깨를 찼은 다음 체에 받쳐서 넣는답니다. 그리고 조기 한 마리를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접시 위에 올려놓습니다. 매운 고추를 송송 썰어 된장찌개까지 끓이면 더 좋겠죠? 이제 준비가 됐으니 즐거운 식사시간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따끈한 미역국에 노릇노릇 조기까지. 군침이 꿀꺽 넘어갑니다. 맛있는 음식에 뉘 놓고 있다 정답을 잊어버리신 건 아니겠죠? 이제 정답을 찾아봅시다. ‘앉힌’과 ‘받쳐서’ 밥을 하기 위해 쌀을 솥에 넣는 것은 ‘안치다’입니다. ‘안치다’라고 하면 ‘앉게 하다’란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쌀을 고르게 앉힌 다음’은 ‘쌀을 고르게 안친 다음’으로 고쳐야 맞습니다.

다음으로, 체로 거르는 것은 ‘발다’가 아닌 ‘받다’입니다. ‘받다’의 센말이 ‘받치다’이므로 ‘체에 받쳐서’가 아니라 ‘체에 받쳐서’가 맞는 거죠.

2. ‘족집게’와 ‘짜집기’

‘어떤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해 내거나 잘 알아맞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 많은 사람이 ‘족집게’ ‘족집개’ ‘족집게’ ‘족집개’라고 씁니다. 된소리로 발음하는 언어습관에 젖어 이렇게들 쓰는 것 같은데요, 표준어는 ‘족집게’이고, 표준 발음은 [족집게]입니다.

[12차시] 헛갈리는 말



또 자주 틀리는 것으로 ‘짜집기’가 있습니다. “짜집기를 특히 잘하는 세탁소나 옷수선 집을 알면 좀 애기해 줄래?” “그 유명한 족집게 과외 강사가 쓴 교재도 시중의 여러 참고서를 짜집기한 것이었다”에서처럼 ‘짜집기’가 바른 말인 줄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직물의 찢어진 곳을 본디대로 흠집 없이 잘 짜서 깎는 일’은 ‘짜집기’가 아니라 ‘짜깁기’로 적어야 올바른 표기입니다. 여기서 ‘깎다’는 ‘깎다’의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방언입니다. ‘짜깁다’가 아니라 ‘짜깁다(짜다+깎다)’에서 온 말이므로 ‘짜깁기’가 바른 말입니다.

※ 심화학습

‘족집게’를 ‘족집게’라고 부르는 것처럼 된소리로 잘못 알고 있는 말들을 더 알아보시다.

일상생활에서 일부 말은 된소리로 발음해야 말맛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죠. 소주는 ‘쏘주’고, 강술은 ‘깡술’로, 자장면도 ‘짜장면’으로, 졸병도 ‘쫄병’으로 해야 맛이 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소주’ ‘깡술’ ‘자장면’ ‘쫄병’이 표준어라는 건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3. 가늠/가름/갈음

‘가늠’과 ‘가름’ ‘갈음’은 비슷한 발음과 표기 때문에 그 의미가 헛갈리기 일쑤입니다. 각각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가늠’은 ‘헤아려 보는 일, 짐작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요즘은 도무지 시국의 향방을 가늠할 수가 없다” “막연한 가늠으로 사업을 하다가는 실패하기 쉽다”처럼 쓰입니다.

‘가름’은 ‘가르다’에서 파생된 명사로 ‘따로따로 나누는 일 또는 구분하는 일’을 말합니다. “아내와 남편의 도리가 저마다 가름이 있어야 한다” “이번 경기는 선수들의 투지가 승패를 가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등의 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갈음’은 ‘갈다’에서 온 말로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함’, 즉 ‘대체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내일 발표할 공지사항은 이 인쇄물로 갈음한다(대신한다)”처럼 쓰면 됩니다.

‘가름’과 ‘갈음’은 원래 어디에서 온 말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뜻을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12차시] 헛갈리는 말



4. ‘곤혹’과 ‘곤욕’

예전에 간편하게 데워 먹을 수 있는 ‘즉석 보신탕’이 상품화된다고 보도되자 동물 보호론자들의 항의가 빗발쳐 관계 당국이 ‘곤혹’스러운 적이 있습니다.

개고기를 식용으로 허용한 것 아니냐는 항의 전화에 식의약청은 곧바로 진상 파악에 나서는 등 때 아닌 ‘곤욕’을 치른 바도 있죠.

‘곤혹’과 ‘곤욕’은 이렇게 발음에 글자까지 비슷해 정확히 구분해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곤욕(困辱)’은 글자 그대로 ‘심한 모욕’을 말합니다. “아랫사람에게 차마 듣지 못할 소리를 듣는 곤욕을 당했다” “산에서 꽃나무를 꺾어 내려오다 산림 감시원에게 적발돼 곤욕을 치렀다”와 같이 사용합니다.

‘곤혹(困惑)’은 곤란을 당해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난처함’을 뜻합니다. “집에 초대한 손님의 옷에 커피를 엇질러 곤혹스러웠다” “산더미 같은 재활용 쓰레기 앞에서 어떻게 재분류해야 할지 몰라 곤혹스럽다”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곤욕=심한 모욕’이므로 ‘당하다, 치르다, 겪다’란 단어와 어울리게 되고, ‘곤혹’은 난처한 상황을 의미하므로 ‘~스럽다’와 함께 쓴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도록 합시다.

5. ‘들이키다’와 ‘들이켜다’

‘들이키다’와 ‘들이켜다’ 역시 혼동되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더구나 과거형으로 쓸 때 둘 다 ‘들이켰다’가 돼 많은 사람이 헛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들이키다’와 ‘들이켜다’는 어떻게 다를까요?

다음 예문을 봅시다.

“그는 양말을 벗어 툭툭 털더니 마루에 놓인 냉수 한 사발을 쭈욱 들이키고 나서 목에 감았던 수건으로 땀을 닦았다”

이처럼 물 따위를 꿀꺽꿀꺽 마신다는 뜻으로 ‘들이키다’를 많이 쓰는데, ‘들이켜다’가 맞는 말입니다. ‘막걸리를 벌컥벌컥 들이켰다’에서의 ‘들이켰다’는 ‘들이켜다’에 과거형 어미인 ‘-었-’이 붙은 형태입니다.

[12차시] 헛갈리는 말



그럼 다음 예문을 살펴볼까요?

“소나기가 들이치자 어머니께서는 베란다에 놓인, 꽃이 피어 있는 난 화분을 안쪽으로 들이켜신다”

난 화분을 마실 수는 없겠죠. ‘들이키다’는 ‘안쪽으로 가까이 옮기다’는 뜻으로, 이 경우 ‘들이켜신다’가 아니라 ‘들이키신다’로 써야 합니다.

6. ‘가르치다’와 ‘가리키다’

‘가르치다’와 ‘가리키다’는 발음이 비슷해 헛갈려 쓰기 쉽지만 구분해 사용해야 합니다.

‘가르치다’는 사람이 중심이 돼 지식이나 기술, 이치 등을 깨닫게 하는 일, 즉 교육(敎育)을 한다는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한 집안의 화목은 주부의 조그마한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쳤다” “가르침을 제대로 해야 국가가 바로 선다” 등이 그 예이지요.

이와 달리 ‘가리키다’는 손가락, 고갯짓 등으로 어떤 방향이나 대상을 꼬집어 나타내 보이거나 강조할 때 쓰는 말로 ‘지시’나 ‘지정’의 개념이 들어 있는 말입니다. 사회적 약속에 의한 각종 도로 표지판, 경고 표시 등 그림으로 나타낸 상징물도 가리키는 예에 포함됩니다.

‘가리키다’는 “사람들은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는 그를 가리켜 현대판 홍길동이라 했다” “그는 손가락으로 북쪽 하늘을 가리켰다” 등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